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에서 성별과 수혜자의 조절효과

김민지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행위자의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가 행위자의 성별과 행동의 수혜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5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 계층 의식과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행위자의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는 행위자의 성별과 행동의 수혜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수혜자 조건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남성은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와 달리, 여성의 경우,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수혜자 조건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성은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과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사회 계층에 따른 행동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인과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을 다루었다.

주요어 : 사회 계층, 성별, 비도덕적 행동, 주체성 vs. 공존성, 자기 수혜적 vs. 타인 수혜적

[†]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jinkyung@sogang.ac.kr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륙 전 제공되었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하기할 것을 요청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SK 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 등 높은 사회 계층의 비도덕적인 행동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사회 계층과 관련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Kraus & Callaghan, 2016; Kraus, Côté, & Keltner, 2010), 친사회적 행동은 적게(Piff, Kraus, Côté, Cheng, & Keltner, 2010), 비도덕적인 행동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ff, Stancato, Côté, Mendoza-Denton, & Keltner, 2012).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뿐 아니라 심리학의 연구들도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Dubois, Rucker, & Galinsky가 진행한 최근의 연구(2015)는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가 이처럼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Dubois 등(2015)의 연구 결과에서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는 사회 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타인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은 오히려 사회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비도덕적 행동의 수혜자에 따라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사회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 계층은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사회 계층은 자기개념(self-concept)(Stephens, Markus, & Townsend, 2007)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감(Kraus, Piff, & Keltner, 2009) 등에 영향을 주는데, 이처럼 사회 계층이 개인의 인지적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 가운데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가 사회 계층에 따른 주체성(agency)과 공존성(communion)의 차이이다.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더욱 초점을 두고, 외부와 자신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덜 의존적일 수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 더욱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초점을 두며, 자신을 주변에 포함된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많고, 따라서 타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을 고려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적응적이기 때문이다(Piff et al., 2010; Stephens et al., 2007). 예를 들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타인과 같은 물건을 선택했을 때 더 만족감을 느꼈고(Stephens, Fryberg, & Markus, 2011), 타인의 고통에 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Stellar, Manzo, Kraus, & Keltner, 2012; Varnum, Blais, Hampton, & Brewer, 2015). 즉,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 주의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비도덕적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반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공존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의 초점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타인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체성과 공존성은 사회 계층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Eagly의 사회 역할 이론(social role theory)(1987)에 따르면, 남성은 좀 더 주체적(agentive)이어야 하고, 여성은 좀 더 공존적(communal)이어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믿음이 있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기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회 계층에 따른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과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의 차이가 주체성과 공존성의 차이 때문이라면, 성별 또한 이 변인들

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 계층과 성별의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 계층과 성별의 효과를 함께 탐색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Piff et al., 2012; Trautmann, Van De Kuilen, & Zeckhauser, 2013), 성별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Mai, Ellis, & Welsh, 2020; Tang & Chen, 2008)를 각각 살피는 연구들이었다. 또한, 비도덕적 행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사회 계층, 성별 각각의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계층과 성별의 복합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인 최근 연구(McGinn & Oh, 2017)를 통해서도 사회 계층과 성별을 함께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 계층과 성별의 복합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계획되었다. 정리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행동의 수혜자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계층과 성별, 행동의 수혜자에 따른 비도덕적 행동 경향을 조사하였다.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

사회 계층이란 경제 수준, 직업의 명성, 교육 수준에서 한 개인이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며(Kraus, Piff, Mendoza-Denton, Rheinschmidt, & Keltner, 2012),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직업적으로 더 높은 명성을 갖는다(Kraus et al, 2012).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

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Piff et al., 2012). Piff 등(2012)의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보상을 받기 위해 주사위 눈의 수를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비도덕적 행동 시나리오에서 그런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비도덕적 행동 측정도구는 행동의 수혜자가 행위자 자신이었다. 즉, 모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비도덕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Dubois 등(2015)은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 경향의 관계가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도덕적 행동의 수혜자가 행위자 자신인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Piff 등(2012)이 진행한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비도덕적 행동의 결과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Dubois 등(2015)은 이런 결과가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른 권력(power) 지각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소유한 자원이 풍부한 높은 사회 계층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에 대한 통제감을 의미하는 권력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는데(Dubois et al., 2015), 이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사고의 초점을 자신에게 둘 수 있는 주체성(agency)을 더 높게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Jiang, Zhan, & Rucker, 2014; Rucker, Galinsky, & Dubois, 2012). 주체성은 스스로를 주변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주체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높은 주체성을 경험하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도록 행동하게 된다(Abele & Wojciszke, 2007; Abele & Wojciszke, 2014; Bakan, 1966). 예를 들어, 자신의

권력을 크게 지각한 연구 참여자들이 권력을 더 작게 지각한 연구 참여자들보다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Galinsky, Magee, Inesi, & Gruenfeld, 2006),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Rucker, Dubois, & Galinsky, 2011). 즉,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생각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주체성의 수준이 높아서 타인보다는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와 달리,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삶에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작게 지각하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기회나 도움 혹은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타인들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공존성(communion)을 더 높게 갖는다. 공존성은 스스로를 주변 환경에 포함된 존재로 보고 자신을 주변과 관련지어 생각하도록 한다. 따라서, 높은 공존성 수준은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꺼리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Dubois et al., 2015).

정리하면,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의 관계는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절된다. 구체적으로,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 계층에 따라 갖게 되는 주체성과 공존성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행동하게 하는 주체성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 수혜적 비도

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변과 관련시켜 이해하고,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며 행동하게 하는 공존성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성별과 주체성-공존성 모델

이처럼 주체성-공존성 모델(agency-communion model)은 자신과 자신 외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틀 중 하나이다. 주체성(agency)은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해하는 관점으로 자기를 더 확장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중시하며,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성의 관점에 따른 자기개념(self-concept)을 갖게 되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획득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와 달리, 공존성(communion)은 자기를 주변 환경에 포함된 존재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타인의 정서와 안녕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존성의 관점에 따른 자기개념을 갖게 되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한 생각과 행동하게 된다(Abele & Wojciszke, 2007; Bakan, 196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체성과 공존성의 관점으로 자기를 개념화하는 것에서 성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존재한다.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과 사회적으로 공유된 성별 특성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주체성은 남성과 관련되어 남성이 더 쉽게 경험하며, 공존성은 여성과 관련되어 여성이 더 쉽게 경험한다(Bem, 1974; Eagly, 1987; Fiske, Cuddy, & Glick, 2007; Spence, Helmreich, & Stapp, 1975). 또한,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성별 특성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강화된다(Eagly, Makhijani, & Klonsky, 1992).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의 미묘한 정서를 더 잘 파악하며(Hoffmann,

Kessler, Eppel, Rukavina, & Traue, 2010; Montagne, Kessels, Frigerio, de Haan & Perrett, 2005), 이타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Bihm, Gaudet, & Sale, 1979; Brañas-Garza, Capraro, & Rascon-Ramirez, 2018).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공존성과 관계성 수준이 더 높아 타인 초점적 사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보고하는 주체성에서의 격차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공존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주체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Abele, 2003; Spence & Buckner, 2000; Twenge, 1997; Twenge, 2001). Spence와 Buckner(2000)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연구 결과와 달리 주체성과 관련된 특성에서 여성들이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고, Twenge(2001)의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서도 자기주장성 점수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계층 역시 상승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3.8%로 남학생(65.9%)보다 7.9%p 높았으며, 여성 고용률은 50.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통계청, 2019). 이처럼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계층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들의 주체성도 증가하게 되어 과거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고, 자신에게 더 초점을 두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주체성에서의 성차는 최근 들어 줄어들고 사라졌지만, 공존성의 경우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체성과 공존성, 특히 공존성에서 여전히 성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체성과 공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비도덕적 행동의 수혜자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계층

간의 차이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려고 한다.

본 연구

본 연구는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의 관계가 행위자의 성별과 행동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조절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비도덕적 행동의 수혜자가 자신인지, 타인인지 여부가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 영향을 준다(Dubois et al., 2015).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려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이 관계가 반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자기개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사회 계층과 자기 수혜적(vs.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의 관계는 행위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체성의 관점에서 자신을 개념화 하는 남성의 경우,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높은 주체성 수준을 갖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존성의 관점에서 자신을 개념화하는 여성의 경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공존성의 수준이 높은 여성에게서는 사회 계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회 계층과 관계없이 타인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혹은, 사회 계층의 효과와 성별의 효과가 모두 나타나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여성은 사회 계층에 따라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과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 대해 사회 계층 × 성별 × 수혜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기대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과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에 행위자의 성별과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려 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여성의 경우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과 타인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 있어 사회 계층 효과로 인한 차이가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국내 온라인 리서치 엠브레인(Embrain)을 통해 20-50대 250명(여자 129명)의 연구 참여자를 각 성별 및 연령대 별 유사한 비율로 모집하였다. 평균 연령은 39.55세 ($SD=10.72$ 세)였다. 연구 참여자 중 120명은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에, 130명은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측정 도구 및 절차

모든 연구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가장 먼저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과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고, 각 조건에 해당되는 8개의 비도덕적 행동 시나리오에 대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사회 계층을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적 문항에 응답하였다. 모든 측정 도구에 대한 응답을 마치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관련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되었고,

연구 참여에 대해 엠브레인의 규정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었다. 본 연구의 절차는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SGUIRB-A-1910-46).

비도덕적 행동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Detert, Treviño, & Sweitzer(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동일한 시나리오를 Dubois 등(2015; study2)이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8개의 비도덕적 행동 시나리오를 읽고, 그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은지 7점(0=절대 하지 않음, 6=매우 할 것 같음) 척도로 응답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의 시나리오에 제시된 비도덕적 행동은 더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 수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전 선배들이 사용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행동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도덕적 행동이었으며, 모두 이득과 관련된 비도덕적 행동이었다.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시나리오와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시나리오는 이익을 얻는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동일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이 .776,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이 .773이었으며, 8개 문항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

당신은 변화가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직원이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 당신은 수업이 끝나고 곧장 일하러 와서 배가 고프는 상황이다. 마침 매장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 먹는다.

표 1. 비도덕적 행동 시나리오 요약 내용

비도덕적 행동	
시나리오 1	일하는 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친구에게 주는) 행동
시나리오 2	학과 사무실에 있는 복사 용지를 한 봉지 가져가는(가져가서 친구에게 주는) 행동
시나리오 3	유출된 시험 문제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는(물어서 친구에게 알려주는) 내용
시나리오 4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을 깨닫고 그냥 갖는다(친구에게 주는) 내용
시나리오 5	잘못 채점되어 실제보다 높게 기록된 자신의(친구의) 시험 점수를 정정하지 않는 행동
시나리오 6	수업에서 사용할 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제본하는(제본하여 친구에게 주는) 행동
시나리오 7	경쟁사 제품의 비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신문을 속이고 정보를 알아내어(알아내어 직장 동료에게 알려주는) 행동
시나리오 8	수업의 팀 프로젝트에서 이미 이전에 선배들이 사용했던 주제를 그대로 사용하는(친구의 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행동

주. 시나리오 6의 경우 원안의 내용은 수업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친구가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는) 행동이었으나, 우리나라 대학생 문화를 고려했을 때 소프트웨어 설치보다 책 제본이 더 익숙할 것으로 판단하여 책을 제본하는 내용으로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

당신은 변화가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직원이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 당신의 친구가 수업이 끝나고 곧장 와서 배가 고픈 상황이다. 마침 매장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 친구에게 준다.

주관적 사회 계층 의식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사회 계층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인이 5개의 사회 계층 범주(1=하층, 2=중하층, 3=중산층, 4=중상층, 5=상류층) 중 어느 곳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Côté et al., 2020; Ostrove & Long, 2007). 전체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사회 계층 의식 분포는 평균 2.56, 표준편차 .743이었다.

사전 분석

먼저, 자기 수혜 조건과 타인 수혜 조건에 대한 연구 참여자 무선 할당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조건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주관적 사회 계층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표 2).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대 분포는 두 조건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chi^2(1)=.000, p=.984$, 연령대: $\chi^2(3)=.138, p=.987$). 주관적 사회 계층 역시 두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48)=-.538, p=.591$). 따라서, 자기 수혜 조건과 타인 수혜 조건에 대한 적절한 무선 할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상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혜자 조건과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 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85, p=.003$).

결 과

표 2. 조건별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대 분포 및 주관적 사회 계층

	성별		연령대				주관적 사회 계층 <i>M(SD)</i>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자기 수혜 조건 (<i>N</i> =120)	58 (48.3%)	62 (51.7%)	29 (24.2%)	29 (24.2%)	31 (25.8%)	31 (25.8%)	2.54 (.777)
타인 수혜 조건 (<i>N</i> =130)	63 (48.5%)	67 (51.5%)	32 (24.6%)	32 (24.6%)	35 (26.9%)	31 (23.8%)	2.58 (.712)
	121	129	61	61	66	62	2.56(.743)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1. 조건	-			
2. 성별	-.001	-		
3. 사회 계층	.034	.029	-	
4.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	-.185**	-.076	.024	-
<i>M (SD)</i>			2.56(.743)	3.465(1.1237)

주. 조건: 0=자기 수혜 조건, 1=타인 수혜 조건, 성별: 0=남성, 1=여성

* $p < .05$, ** $p < .01$, *** $p < .001$.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서 나타나는 사회 계층, 성별, 및 수혜자의 상호작용 효과

다음으로 사회 계층과 자기 수혜적(vs.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사회 계층, 성별(남/여), 조건(자기 수혜 조건/타인 수혜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가설이었으므로 사회 계층, 성별, 조건, 조건 × 성별, 조건 × 사회 계층, 성별 × 사회 계층, 조건 × 성별 × 사회 계층을 모두 함께 분석에 투입하였다(이영록, 전무경, 2019; Moss & Willoughby, 2018; Park et al., 2013). 이때, 사회 계층에 대한 측정 도구인 주관적 사회 계층 의식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고

려하여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 대한 사회 계층 × 성별 × 조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288$, $p=.012$. 즉, 비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사회 계층과 성별, 행동의 수혜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 대한 사회 계층, 조건,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사회 계층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235$, $p=.041$. 조건의 주효과는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beta=-.174$, $p=.054$, 성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063$, $p=.482$.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 계층 × 조건의

표 4.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 계층, 성별, 수혜자의 조절효과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B	B SE	β	t	p	F	R ²
조건(A)	-.390	.201	-.174	-1.940	.054	2.569*	.069
성별(B)	-.142	.202	-.063	-.704	.482		
사회 계층(C)	.355	.173	.235*	2.053	.041		
A × B	-.087	.279	-.034	-.310	.756		
A × C	-.525	.250	-.240*	-2.098	.037		
B × C	-.591	.263	-.257*	-2.246	.026		
A × B × C	.958	.380	.288*	2.520	.012		

주. 조건: 0=자기 수혜 조건, 1=타인 수혜 조건, 성별: 0=남성, 1=여성

* $p < .05$, ** $p < .01$, *** $p < .001$.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240, p = .037$, 사회 계층 ×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257, p = .026$, 조건 ×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34, p = .756$. 하지만 이 모든 효과들은 연구의 가설에서 상정한 사회 계층 × 성별 × 조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제한되었다(표 4). 연구의 가설과 같이 사회 계층 × 성별 × 조건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독립변인들의 주효과와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따로 해석하지 않고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성별 내에서 사회 계층 × 조건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남성 연구 참여자의 경우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 대한 사회 계층 × 조건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66, p = .033$. 각 조건 내에서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에 대한 사회 계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 연구 참여자의 두 조건에 대해 각각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에서는 사회 계층이 비도덕적 행동의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263, p = .046$. 이와 달리,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조건에

서는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의 관계가 정반대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eta = -.127, p = .323$. 즉, 그림 1-(ㄱ)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할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타인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 계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대해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던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며, 사회 계층과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밝힌 Dubois 등(2015)의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여성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도 같은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1-(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수혜 조건과 타인 수혜 조건 모두에서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 수혜 조건: $\beta = -.147, p = .255$, 타인 수혜 조건: $\beta = .116, p = .349$. 따라서, 남성과 달리, 사회 계층 × 조건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178, p = .142$. 즉, 수혜자에 따라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 사이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Dubois 등(2015)의 연구 결과는 여성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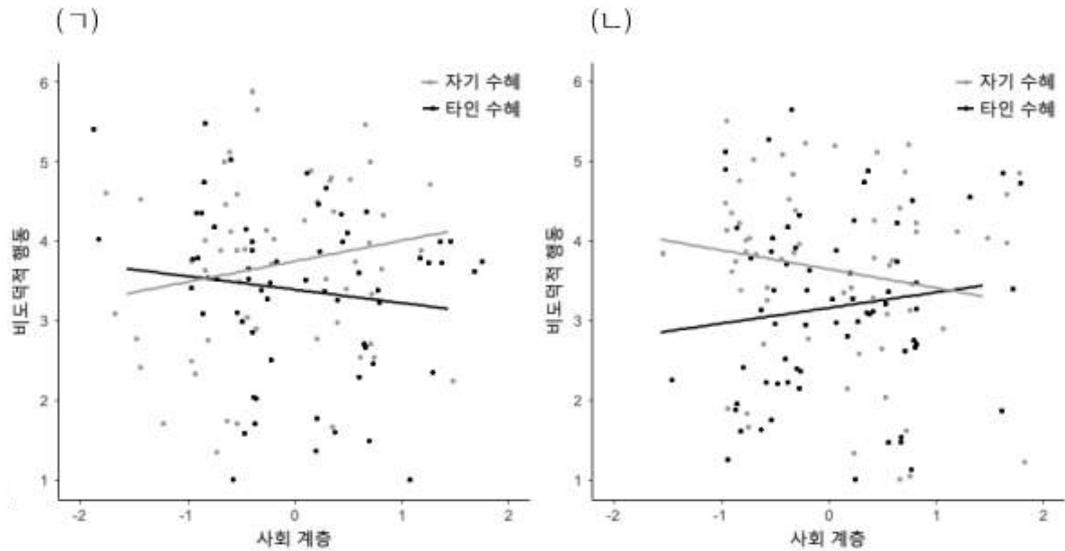


그림 1. 남성 연구 참여자(ㄱ)와 여성 연구 참여자(ㄴ)의 사회 계층과 수혜자 조건에 따른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

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공존성 수준이 높다는 선행 연구(Fiske et al., 2007)에 근거하여 예측했던 여성의 경우 사회 계층의 상승에 따른 자기 수혜적,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맥상통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 계층과 성별에 따라 비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사회 계층과 성별(남성 vs. 여성), 행동의 수혜자(자기 vs. 타인)의 삼원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계층 × 성별 × 수혜자 조건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사회 계층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은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타인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여성의 경우,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에 있어서 사회 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체성과 공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체성을 갖는 남성은 사회 계층이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초점을 두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인 반면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고, 더 높은 공존성 수준을 갖는 여성은 사회 계층이 높아지면서 타인과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사고방식과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인지적 경향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것처럼 주체성과 공존성은 사회 계층, 성별, 문화권 등에 따른 자기이해, 인지 경향성, 행동 패턴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들과 관련된다 (Aydin, Ullrich, Siem, Locke, & Shnabel, 2019; Chen, Li, & Wei, 2019; Kashima et al., 1995; Wojciszke & Bialobrzaska, 2014). 하지만 Kashima 등(1995)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자기이해의 차이는 특히 타인과의 관계성 차원(relational dimension)에서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과 사회 계층에 따른 주체성과 공존성의 차이를 모두를 고려하여 이루어졌지만, 연구의 목표가 성별에 따른 자기이해와 인지 경향성 차이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만큼 추후에는 타인과의 관계성과 관련된 요소인 공존성만을 고려하여 성별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행위자의 성별이 기존 연구(Dubois et al., 2015)에서 밝혀낸 변인인 행위자의 사회 계층, 행동의 수혜자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비도덕적 행동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비도덕적 행동과 사회 계층 관계(Piff et al., 2012; Trautmann et al., 2013), 비도덕적 행동과 성별의 관계(Mai et al., 2020; Tang & Chen, 2008)를 각각 확인한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 계층과 성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둘째, 이로써 사회 계층에 따른 인지적 경향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결과 역시 성별에 따라 조절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사회 계층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타인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잘 공감하지 못한다(Kraus et al., 2010). 또한, 더 독립적인 자기관점(independent self-view)을 가지며, 단순히 주의의 초점을 측정한 경우에도 높은 사회 계층 사람들은 주변 환경보다 핵심 사물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Grossmann & Varnum, 2011). 하지만 이러한 사회 계층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체성과 관련이 높은 남성의 경우 사회 계층의 효과가 기존과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공존성과 관련이 더 높은 여성의 경우 위와 같은 사회 계층의 효과가 약화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공존성이 높으면 주변과 타인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므로, 여성은 사회 계층이

높더라도 타인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정도가 낮은 사회 계층의 여성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주변 환경과 핵심 사물에 주의의 초점을 두는 정도 역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인지적 경향에 대한 사회 계층과 성별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별을 변인으로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했듯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 그에 따라 종래의 남성 중심적이었던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통계청, 2019). 본 연구에서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에서 성별의 효과가 나타난 만큼, 사회 계층이 높은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계층이 올라감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가 남성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지만 여성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는 반대로 사회 계층이 올라감에 따라 여성에게는 나타나지만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효과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음에도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신원우, 2017; 원숙연, 2014). 또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히 여성들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다(Abele, 2003; Spence & Buckner, 2000; Twenge, 1997; Twenge, 2001).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 계층이 올라가게 되면 이는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 특성에 영향을 받은 자기개념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충돌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Eagly & Karau, 2002). 예를 들어, 사람들은 여전히 주체성을 더 좋은 관리자의 특성으로 평가하지만(Powell, Butterfield, & Parent, 2002), 높은 지

위의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특성을 기대한다(김혜숙, 윤소연, 2009; Eagly et al., 1992).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이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보여야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의 심리적 특성도 함께 보여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하기도 한다(원숙연, 2007; Clow & Ricciardelli, 2011; Eagly & Karau, 2002).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심리 상태와 사회적 피드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여성 리더의 행동은 성역할 고정 관념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는 반면, 남성 리더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Manzi & Heilman, 2021).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계층의 심리적 효과를 성역할 고정 관념과 관련하여 확장시키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를 통한 연구는 측정 도구의 특성상 비도덕적 행동의 의향을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얼마나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응답만으로 실제 비도덕적 행동 경향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 내용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득과 관련된 비도덕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범죄행위나 이득과 관련되지 않은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다른 맥락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실험 연구나 현장 연구(field study)를 통해 실제 비도덕적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사회 계층을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 계층과 비도덕적 행동의 인과 관계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선행하여 이루어진 연구들(Dubois et al., 2015; Piff et al., 2012)과 마찬가지로,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사회 계층을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 계층의 인과적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도덕성 수준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연구 참여자들의 도덕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두 조건에 연구 참여자들을 무선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도덕성 수준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에 개인의 도덕성 수준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도덕성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 시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 계층과 성별, 수혜자 차이의 효과를 더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 계층과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주체성과 공존성 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계층과 성별, 자기 수혜적(vs.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과 공존성의 수준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의 바탕이 되었던 사회 계층과 주체성, 공존성의 관계, 성별과 주체성, 공존성의 관계가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과 공존성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한 차원의 양극단인 것처럼 개념화하였고 이들 개념과 자기 수혜적(vs.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의 관계도 단순화하여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체성과 공존성을 직접 측정하여 이들 개념 사이의 관계는 물론, 이들 개념과 사회 계층, 성별 및 자기 수혜적(vs. 타인 수혜적) 비도덕적 행동 사이의 관

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계층 상승에 따라 기존의 사회 계층, 성별의 개별적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 계층과 성별의 복합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에 대해 직접 측정하거나, 수혜자가 다른 다양한 행동 경향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 계층에 따른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 계층과 사람들의 심리 과정의 관계에 대한 사회 및 성격 심리학의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이 개인의 심리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가 확인되었다(Kraus et al., 2012; Kraus, Tan, & Tannenbaum, 2013). 하지만 성별에 따른 사회 계층의 효과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사회 계층의 영향이 성별에 의해 조절된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학문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높은 지위의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처럼 사회 계층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함의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김민지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 위계 구조의 영향 및 위계 구조 강화의 심리적 메커니즘, 높은

사회 계층의 비도덕성이다.

나진경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석사,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심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참고문헌

김혜숙, 윤소연 (2009). 여성 리더의 특성과 효율성: 조직의 성차별 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33-54.

신원우 (2017).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 767-775. doi:10.14257/ajmahs.2017.05.61

원숙연 (2007). 조직 내 여성관리자에 대한 평가의 젠더화된 작동원리: 이론적 탐색. *한국여성학*, 23(4), 151-175.

원숙연 (2014).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141-172.

이영록, 전무경 (2019). 호텔기업 비정규직 종업원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 및 보상적 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21(3), 145-160. doi:10.31667/jhts.2019.9.80.145

통계청 (2019).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5629에서 2020년 8월 20일 자료 얻음.

Abele, A. E. (2003). The dynamics of masculine-agentic and feminine-communal traits: Findings from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68-776. doi:10.1037/0022-3514.85.4.768

- Abele, A. E., & Wojciszke, B. (2007).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51-763.
doi:10.1037/0022-3514.93.5.751
- Abele, A. E., & Wojciszke, B. (2014). Communal and agentic content in social cognition: A dual perspective model.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0*, 195-255.
doi:10.1016/B978-0-12-800284-1.00004-7
- Aydin, A. L., Ullrich, J., Siem, B., Locke, K. D., & Shnabel, N. (2019). The effect of social class on agency and communion: Reconciling identity-based and rank-based perspectiv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0*(6), 735-745. doi:10.1177/1948550618785162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Isolation and communion in Western man*. MA: Beacon Press.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doi:10.1037/h0036215
- Bihm, E., Gaudet, I., & Sale, O. (1979). Altruistic responses under conditions of anonym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9*(1), 25-30.
doi:10.1080/00224545.1979.9933635
- Brañas-Garza, P., Capraro, V., & Rascon-Ramirez, E. (2018).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m on mechanical turk: Expectations and actual behaviour. *Economics Letters, 170*, 19-23.
doi:10.1016/j.econlet.2018.05.022
- Chen, X., Li, M., & Wei, Q. (2019).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lass. *Frontiers in psychology, 10*, 2867.
doi:10.3389/fpsyg.2019.02867
- Clow, K. A., & Ricciardelli, R. (2011). Women and men in conflicting social roles: Implications from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5*(1), 191-226.
doi:10.1111/j.1751-2409.2011.01030.x
- Côté, S., Stellar, J. E., Willer, R., Forbes, R. C., Martin, S. R., & Bianchi, E. C. (2021). The psychology of entrenched privilege: High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s from affluent backgrounds are uniquely high in entitl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7*(1), 70-88. doi:10.1177/0146167220916633
- Detert, J. R., Treviño, L. K., & Sweitzer, V. L. (2008). Moral disengagement in ethical decision making: A study of antecedents and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2), 374.
doi:10.1037/0021-9010.93.2.374
- Dubois, D., Rucker, D. D., & Galinsky, A. D. (2015). Social class, power, and selfishness: When and why upper and lower class individuals behave unethical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3), 436-449.
doi:10.1037/pspi0000008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Eagly, A. H., & Karau, S. J. (2002). Role congruity theory of prejudice toward female leaders. *Psychological Review, 109*(3), 573.
doi:10.1037//0033-295X.109.3.573
- Eagly, A. H., Makhijani, M. G., & Klonsky, B. G. (1992). Gender and the evaluation of lea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1*(1), 3-22.
doi:10.1037/0033-2909.111.1.3
- Fiske, S. T., Cuddy, A. J.,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2), 77-83.
doi:10.1016/j.tics.2006.11.005
- Galinsky, A. D., Magee, J. C., Inesi, M. E., & Gruenfeld, D. H. (2006). Power and perspectives not taken. *Psychological science, 17*(12), 1068-1074.

- doi:10.1111/j.1467-9280.2006.01824.x
- Grossmann, I., & Varnum, M. E. (2011). Social class, culture, and cogni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1), 81-89.
doi:10.1177/1948550610377119
- Hoffmann, H., Kessler, H., Eppel, T., Rukavina, S., & Traue, H. C. (2010). Expression intensity, gender and facial emotion recognition: Women recognize only subtle facial emotions better than men. *Acta Psychologica*, 135(3), 278-283.
doi:10.1016/j.actpsy.2010.07.012
- Jiang, Y., Zhan, L., & Rucker, D. D. (2014). Power and action orientation: Power as a catalyst for consumer switching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1), 183-196. doi:10.1086/675723
- Kraus, M. W., & Callaghan, B. (2016). Social class and prosocial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public versus private context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8), 769-777.
doi:10.1177/1948550616659120
- Kraus, M. W., Côté, S., & Keltner, D. (2010). Social class, contextualism, and empathic accuracy. *Psychological Science*, 21(11), 1716-1723.
doi:10.1177/0956797610387613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doi:10.1037/a0016357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3), 546-572. doi:10.1037/a0028756
- Kraus, M. W., Tan, J. J., & Tannenbaum, M. B. (2013). The social ladder: A rank-based perspective on social class. *Psychological Inquiry*, 24(2), 81-96.
doi:10.1080/1047840X.2013.778803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 C., Gelfand, M. J.,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25.
doi:10.1037/0022-3514.69.5.925
- Mai, K. M., Ellis, A. P., & Welsh, D. T. (2020). How perpetrator gender influences reactions to premeditated versus impulsive unethical behavior: A role congruity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6(3), 489-503.
doi:10.1007/s10551-019-04113-y
- Manzi, F., & Heilman, M. E. (2021). Breaking the glass ceiling: For one and a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2), 257-277.
doi:10.1037/pspa0000260
- McGinn, K. L., & Oh, E. (2017). Gender, social class, and women's employment.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84-88.
doi:10.1016/j.copsyc.2017.07.012
- Montagne, B., Kessels, R. P., Frigerio, E., de Haan, E. H., & Perrett, D. I. (2005). Sex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affective facial expressions: Do men really lack emotional sensitivity?. *Cognitive Processing*, 6(2), 136-141.
doi:10.1007/s10339-005-0050-6
- Moss, E., & Willoughby, B. J. (2018). Associations between beliefs about marriage and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role of relationship status and gender. *Journal of Family Studies*, 24(3), 274-290.
doi:10.1080/13229400.2016.1187658
- Ostrove, J. M., & Long, S. M. (2007). Social class and belonging: Implications for college adjustment.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30(4), 363-389. doi:10.1353/rhe.2007.0028
- Park, J., Kitayama, S., Markus, H. R., Coe, C. L., Miyamoto, Y., Karasawa, M., Curhan, K. B., Love, G. D., Kawakami, N., Boylan, J. M., &

- Ryff, C. D. (2013). Social status and anger expression: The cultural moderation hypothesis. *Emotion, 13*(6), 1122-1131. doi:10.1037/a0034273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doi:10.1037/a0020092
- Piff, P. K., Stancato, D. M., Côté, S., Mendoza-Denton, R., & Keltner, D. (2012). Higher social class predicts increased unethical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11), 4086-4091. doi:10.1073/pnas.1118373109
- Powell, G. N., Butterfield, D. A., & Parent, J. D. (2002). Gender and managerial stereotypes: Have the times changed?. *Journal of Management, 28*(2), 177-193. doi:10.1016/S0149-2063(01)00136-2
- Rucker, D. D., Dubois, D., & Galinsky, A. D. (2011). Generous paupers and stingy princes: Power drives consumer spending on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6), 1015-1029. doi:10.1086/657162
- Rucker, D. D., Galinsky, A. D., & Dubois, D. (2012). Power and consumer behavior: How power shapes who and what consumers valu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2*(3), 352-368. doi:10.1016/j.jcps.2011.06.001
- Spence, J. T., & Buckner, C. E. (2000).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trait stereotypes, and sexist attitudes what do they signif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1), 44-62. doi:10.1111/j.1471-6402.2000.tb01021.x
-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29-39. doi:10.1037/h0076857
- Stellar, J. E., Manzo, V. M., Kraus, M. W., & Keltner, D. (2012). Class and compassion: Socioeconomic factors predict responses to suffering. *Emotion, 12*(3), 449-459. doi:10.1037/a0026508
- Stephens, N. M., Fryberg, S. A., & Markus, H. R. (2011). When choice does not equal freedom: A sociocultural analysis of agency in working-class American context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1), 33-41. doi:10.1177/1948550610378757
- Stephens, N. M., Markus, H. R., & Townsend, S. S. (2007). Choice as an act of meaning: The case of social cla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814-830. doi:10.1037/0022-3514.93.5.814
- Tang, T. L. P., & Chen, Y. J. (2008). Intelligence vs. wisdom: The love of money, Machiavellianism, and unethical behavior across college major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82*(1), 1-26. doi:10.1007/s10551-007-9559-1
- Trautmann, S. T., Van De Kuilen, G., & Zeckhauser, R. J. (2013). Social class and (un)ethical behavior: A framework, with evidence from a large population sampl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5), 487-497. doi:10.1177/1745691613491272
-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36*(5-6), 305-325. doi:10.1007/BF02766650
- Twenge, J. M. (2001). Changes in women's assertiveness in response to status and roles: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31-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33-145. doi:10.1037/0022-3514.81.1.133

- Varnum, M. E., Blais, C., Hampton, R. S., & Brewer, G. A. (2015). Social class affects neural empathic responses. *Culture and Brain*, 3(2), 122-130. doi:10.1007/s40167-015-0031-2
- Wojciszke, B., & Bialobrzeska, O. (2014). Agency versus communion as predictors of self-esteem: Searching for the role of culture and self-construal.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5(4), 469-479. doi:10.2478/ppb-2014-0057

1 차원고접수 : 2020. 09. 02.
수정원고접수 : 2021. 05. 14.
최종게재결정 : 2021. 05. 17.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beneficia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unethical behavior

Minji Kim

Jinkyung Na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We hypothes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the tendency of engaging in unethical behavior would be moderated by gender and the beneficiary of the behavior.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250 participants (129 women) were randomly assigned either self-beneficiary or other-beneficiary condition and read unethical behavior scenarios. They were asked the extent to which they would engage in unethical behaviors and their subjective social class. According to the results, social class \times gender \times beneficiary inter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for male participants social class \times beneficiary inter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upper-class men were more likely to behave unethically for themselves than others. However, for female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ed no such difference. That is, upper-class women did not prefer self-beneficial unethical behaviors to other-beneficial unethical behaviors. The finding suggested that gender could be a critical factor with regard to social cognition and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bout social class and social cognition could be moderated by gender.

Key words : social class, gender, unethical behavior, agency vs. communion, self- vs. other-beneficiary